

재생 공간에 나타나는 밈(Meme)적 특성 연구

-독일의 졸페라인 탄광 지구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me Features Appear in Renewal Space

-Focusing on the Renewal Project of the Zollverein Coal Mine Industrial Complex in German-

Author 이현진 Lee, Hyun-jin / 정회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간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이상준 Lee, Sang-Jun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이 찬 Lee, Chan / 정회원,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Abstract The features of the cultural phenomenon, 'Hybrid Culture,' can be analyzed through the concept of 'Meme,' the cultural gene continuously evolves. The architectural meme also has an effect as the cultural symbol on a space. It can be the solution to the urban problems, lack of contextualization caus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stainable and effective renewal space by applying the concept of Meme. Theoretical analysis,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and case study are conducted to analyze the Meme features of the renewal space.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the Meme features appeared in the Zollverein Coal Mine Industrial Complex in Germa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is as written below. First, Meme renewal space is a design that can solve the contextual deficiency of architecture through the cultural renewal. Second, the true renewal spa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meme space that organically changes as if an organism. Third, it is possible to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n the organ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evolving phases-Mimesis, Memplex, and Metameme. Fourth, the true meaning of sustainable renewal space is the Meme space encompasses the scope of urban. Lastly, the Meme space has a circulation system that each evolving phase, and new and old continuously exchange feedbacks.

Keywords 밈, 재생 공간, 졸페라인 탄광 지구
Meme, Renewal Space, Zollverein Coal Mine Industrial Complex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다원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고정적이었던 과거의 시공간 개념은 비고정적이며 유동적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결합하며 또 다른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문화적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밈(Meme)'이라는 문화적 유전자의 개념을 주장한다. 그는 각각의 문화가 결합과 배제 등을 통해 또 다른 문화를 창조하며, 마치 인간의 유전자가 연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생산·진화되듯이 문화도 '밈'이라는 문화 유전자를

통해 진화와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문화적 융합과 창조는 공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는 공간, 대중적인 문화가 반영된 공간들의 만남 등, 다중적 문화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디자인은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한편, 오늘날 도시는 산업화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간적 연속성의 단절과 맥락성의 결핍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이 산업 유휴 시설이다. 최근 문화의 융합과 창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의 발전이 문화 콘텐츠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과거에 도시 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했던 산업시설이 현대에 이르러 그 기능을 상실하고 도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되, 현 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c@kookmin.ac.kr

대의 흐름에 맞춰 재생산하는 ‘공간 재생’이 필요하다. 비록 도심에 위치한 산업 시설이 여러 환경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 때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만큼 넓은 부지와 각종 교통 및 설비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또,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문화적 힘을 갖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면서 스스로 진화하는 문화 유전자인 밈(Meme) 개념의 적용을 통해 문화적 융합을 실현시킴으로써 오늘날 도시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재생 공간을 위한 해결 방안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핵심 내용으로 ‘밈(Meme)’적 특성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생 공간의 밈적 특성 분석에 앞서 각각의 개념과 의미,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밈(Meme)의 일반적 고찰을 통해 정확한 뜻과 구조에 대해 분석 후, 재생 공간의 의미와 유형 분석을 통해 진정한 재생 공간으로서 밈적 특성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재생 공간이 생명체의 유기체적 작용으로 해석됨에 따라 갖게 되는 표현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밈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

이 때, 문화 유전자적 힘을 가지고 확산, 진화 되면서 도시 재생의 범위까지 확장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줄페라인 탄광지구는 이러한 공간 재생의 획기적인 사례로, 유럽의 경우, 이를 본보기로 삼아 적극적인 문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성을 되살린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 사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2. 밈(Meme)과 재생 공간의 이론적 고찰

2.1. 밈(Meme)의 일반적 고찰

(1) 밈(Meme)의 개념

인간의 특이성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문화’는 보수적이면서도 진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적 진화와 유사하다.¹⁾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문화는 하나의 완성된 정보가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 세대를 넘어 비유전적 방법으로 전달되는데 이 전달

과정에서 모방과 복제가 일어나는 유전자 형태를 띤다.²⁾ 이 때, 유전자처럼 복제 역할을 하는 문화 전달의 단위를 ‘밈(Meme)’이라 하며,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메(mimeme)’와 ‘유전자(gene)’의 합성어이다.³⁾ 즉, ‘밈(Meme)’이란 모방에 의해 전달되는 문화적 유전자를 말한다.

사회 생물학에서 진화란 생존, 번식에서 나타나는 개체별 차이를 통해 자연선택 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유전자는 마치 경쟁하듯 복제, 생성되며 자신의 확산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러한 유전자적 개념은 ‘밈’에서도 적용된다.

이기적 유전자가 자신의 확산을 위해 경쟁, 상호 적응하며 현재와 같은 여러 특성을 만들어 왔듯이, 숙주(宿主)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뇌(문화의 Pool) 속에 문화 바이러스(밈)가 침투하여 복제를 통한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성하고, 경쟁을 통한 쇠퇴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자기 증식한다.

이렇듯 생물학적 유전자와 밈은 진화 과정의 큰 틀에서 유사성을 갖지만, 유전자가 세포 조직을 이용해 자기 복제하고 제한된 수가 세대 간에 수직적으로 유전되는 반면, 밈의 경우 무제한의 정보가 인간의 뇌를 통해 개인과 개인, 집단, 사회 간에 수평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유전자는 생물학적 진화라는 점에서 연구를 통한 예측이 가능하나, 밈의 경우 무한정한 복제와 충돌, 상호작용을 통한 재생성에 의해 나타나는 문화적 진화로 예측 불가능하다.

<표 1> 밈(Meme)과 유전자(DNA)⁴⁾

	밈(Meme)	유전자(DNA)
구조	수평적 구조 (개인과 개인, 집단간)	수직적 구조 (세대와 세대간)
차이점	· 뇌 중심(감성적, 정신적) · 변형가능(감성적, 정신적), 예방 불가능 · 사회성 · 문화적 진화 · 결과의 예측 불가(모방+변형)	· 세포중심(생물학적) · 변형가능(생물학적), 예방 가능 · 유전성 · 생물학적 진화 · 질병의 예측 가능(유전+환경)
공통점	진화성 복제(모방, 변형)	

(2) 밈(Meme)의 구조와 특성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이유는 유전자 때문이며, 유전자의 확산을 위해 자신을 복제하려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

도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유전자의 진화형태는 크게 복제-복합체-유전 3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각각의 진화 형태에서 복제와 변이, 결합, 배제 등의 상태변화가 이루어

2) 밈(Meme), 두산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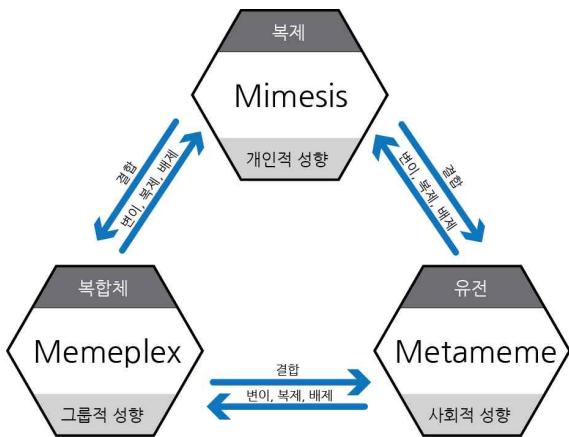
3) Richard Dawkins, op.cit, p.308

4) 윤일, 조벽호, 밈(Meme)의 현상이 문화에 수용되는 공간적 구조,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4권 제3호 통권10호, 2009, p.79

1) Richard Dawkins, 이기적 유전자, 을유 출판사, 2005, p.303

지고 상호작용 및 피드백 되면서 지속적인 유기적 진화가 가능하다. 문화가 진화 및 확산 되는 과정도 유전자의 진화 시스템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데, 앞서 언급된 ‘밈(Meme)’이 문화적 유전자로써 인간의 뇌에서 뇌로 ‘복제’-상호작용을 통해 선택·배제된 밈 ‘복합체’-진화적으로 안정된 유전자 세트로서 ‘유전’의 단계를 거쳐 보다 더 우수한 문화 유전자로 진화한다.

즉, 밈의 진화 형태는 복제된 객체로써의 ‘Mimesis’와 복합체인 ‘Memplex’, 밈들의 결합체이자 이를 어우르는 전일적 개념인 ‘Metameme’ 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들로 변환 및 진화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변화를 통해 서로 피드백 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림 1> 밈(Meme) 매커니즘

① 복제-미메시스(Mimesis)

생명체는 성장, 번식을 하기 위해 세포 분열을 함으로써 그 개체 수를 늘린다. 이 때 원본 유전자가 ‘복제’되어 새로운 두 개의 유전자가 생성 되면서 진화가 시작된다. 이렇듯 진화의 근간이 되는 ‘복제’ 단계는 밈(Meme)의 진화 시스템에서도 적용된다.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무의식, 또는 의식 중에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습득하게 된다. 이는 문화적 유전자 ‘밈’이 일종의 바이러스처럼 개개인에게 침투하여 복사, 확산되는 것으로 문화적 진화의 기초적 단계가 된다.

이 때, 밈의 복제는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복제와 달리 무제한의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수평적으로 전달되므로 항상 완벽하게 복제되지는 않는다.

이 과정에서 복제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달되는 밈의 특정 부분만 선택되거나 수정(修正)이 일어나는 등 항상 변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⁵⁾ 모방을 뜻하는 ‘미

메시스(Mimesis)’의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미메시스 단계의 특징을 보면 단일의 밈 또는 융합된 밈(밈플렉스 또는 메타밈)이 개인에게 습득된 ‘객체 밈’으로 개인적 성향이 강하다.

② 복합체-밈플렉스(Memplex)

생명체를 이루는 어떤 결과에 있어서 유전 인자든 환경 인자든 단일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 모든 유전자는 상호 영향을 받아 선택되고 배제되며, 서로 협조하는 유전자가 모여 결합된 ‘복합체’를 형성하여 진화한다. 따라서 유전자 풀에서 떠다니는 각각의 유전자는 서로에게 선택의 배경이 되는 환경의 일부가 되고 서로 협동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방향으로 긴밀하게 결합한 집단이 되는 것이다.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밈의 경우에도 다른 밈들을 배경으로 하는 환경에서 선택되고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상호 적용한 밈 복합체인 ‘밈플렉스’라 한다.⁶⁾ 즉, 유전자가 진화에 유리한 형태(복제에 유리한)로 결합하듯 서로 공생하는 밈(co-meme)의 조합을 이뤄 보다 강력한 문화 유전자가 되는 것이다.

밈플렉스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룹이 중심이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밈을 그룹의 성향에 맞게 조율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개인적 성향보다는 그룹의 성향이 강하며 그룹과의 타협에 의해 개인의 취미나 취향이 수그러들고 그룹의 성향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단계로 볼 수가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같은 세대와 세대 간의 전수를 통해 적응하는 단계이다.

③ 유전-메타밈(Metameme)

‘유전’ 단계는 서로 협조 가능한 유전자가 모여 진화적으로 안정된 유전자 세트를 이루는 단계이다. 이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ESS, 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을 갖는 단계로 유전자 개체군이 일단 그 전략을 수용하면, 다른 전략으로 대체 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그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려는 성격을 갖게 되며, 환경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기존 전략과 상태의 안정적 세트로 복원된다.

때때로 어떤 새로운 유전자가 그 세트에 침입하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안정한 과도기를 거쳐 진화적으로 안정된 하나의 새로운 조합을 이룬다. 즉, 작은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⁷⁾

수많은 밈이 유행하는 밈 풀 안에서 형성된 안정적 밈 세트는 각각의 밈을 인지하고 다스리는 ‘메타밈(Metameme)’으로써 본래 특성의 유지, 복제, 확산의 힘을 갖게 된다. 여기서 ‘메타밈(Metameme)’⁸⁾이란, ‘사이에, 뒤에, 넘어서’등을 뜻하는 접두어와 밈(Meme)의 합성어로

5) Susan Blackmore,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MEME, 바다출판사, 2010, p.59

6) Ibid., p.21

7) Richard Dawkins, op. cit., p.146

8) Richard Brodie, 마인드 바이러스, 흐름출판, 2010

초월적 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밈에 대한 밈, 상호 작용하는 밈을 지배하는 초월적 이면서 전일적 특성을 갖는 밈이다.

누군가의 뇌(또는 마음)에 있던 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전달된 밈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가지고 있던 메타밈이 자기 복제된 것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사회적, 지역적 특성에 맞춰 결합함으로써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파될 힘을 갖는 메타밈인 ‘자리 잡은 문화’가 되는 것이다.

2.2. 재생 공간의 이해

‘재생’의 사전적 의미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생명을 다시 갖게 하다’로 ‘Re’라는 접두어가 붙어 ‘다시’라는 의미를 주고, Reborn, Renewal, Regeneration 등으로 번역되어 진다. 즉, ‘공간 재생’이란 공간에 생명을 다시 갖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동적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며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⁹⁾

따라서, 재생 공간은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며,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어져 그 가치가 발휘되는 연속적인 흐름체라고 할 수 있다.

(1) 재생 공간 표현 방법

일반적으로 이미 구축되어진 공간을 지속시키는 방법에는 그 목적에 따라 복원, 보존, 보전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갖는다.¹⁰⁾

먼저 복원(Restoration)은 과거의 특정시점으로 되돌아가 원 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하며, 보존(Preservation)은 현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추가적 변형 없이 현 시점을 그대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보전(Conservation)은 보존의 적극적 활용의 의미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에 더 나은 가치가 발휘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 복원과 보존은 설계자의 창조적 행위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디자인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즉, 보존에 미래적 개념을 더한 보전이 디자인의 범위에서 공간 재생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¹¹⁾ 이는 새로운 요소의 적용 등에 의한 적극적 변화와 활용의 경우이다. 따라서 건축적 변화 적용에 따라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만나 이루어지는가의 관점으로 재생공간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9) 전한나, 현대 공간재생의 개념 확장과 표현요소로서 디자인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7, p.11

10) 라도삼, 문화환경의 창출과 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문화정책논총 제 17집, 2005, p.90~p.91

11) 전한나, op. cit, p.21

<표 2> 건축적 행위에 따른 신·구 요소 간의 접목 관계 유형

관계 유형	건축 행위에 따른 유형 특성	
	증축	개축
치환형	건물의 파사드를 이루는 면이 다른 면으로 전환되는 형태.	공간 내부의 물리적, 기능적 요소의 치환
첨가형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 한 상태에서 새로운 요소를 부착.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부에 새로운 요소가 첨가함으로써 일부를 변형.
병치형	기존의 건물과 새로 구축된 공간을 연결하여 대비를 이루는 자립적 병치	기존의 공간의 틀 안에서 새로운 공간이 대비적으로 형성되는 병치 유형.
융합형	신·구 요소들이 공간을 공유하며 혼합되는 형태로 상호의존적 관계 유형.	

(2) 재생 공간의 의미와 특성

진정한 재생 공간이란 유기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 요소와 어우러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목적이 변해 퇴색해버린 공간 혹은 버려진 공간에서 그 가치가 재부여 된 공간이다. 따라서, 재생 공간은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생물학의 ‘재구성’ 또는 ‘변용’의 관점으로 해석 가능 하다.

생명체란 물질의 어느 특수한 상태의 조합이며, 도시나 건축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서로 얽혀 구성되어 있는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¹²⁾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스스로 조절하고 질서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맥락적 흐름에 맞춰 스스로 조절하며 공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재생 공간은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유기적 집합체이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생명체는 종의 존속을 위해 다양한 형질을 갖는다. 단순한 형질은 변화 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 있어 선택 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유전적 형질을 갖는다. 재생 공간 또한 시간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선택되고 배제된 다양한 신·구 요소의 결합체로 유기체의 복합적 특성을 갖는다.

둘째, 복합적으로 결합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나, 각 부분은 긴밀한 연결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각각의 형질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혼성적 결합체이며, 재생 공간의 경우 형태적, 구조적, 기능적 신·구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된 통합적 구조를 갖는다.

셋째, 생명체는 여러 과정의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변화한다. 진화의 방향에 맞춰 스스로 자기조직화 하여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생명력을

12) 김병윤, 진경문, 현대 건축과 생물학의 대화, 2000, p.42

갖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연속적 흐름체라는 점에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재생 공간에 적용 가능하다.

넷째,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제와 형성, 결합과 해체, 변형 등 다양한 변위의 폭과 창조에 대한 잠재성을 갖는다. 재생 공간도 유기적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신·구 요소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결과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열린 체계로써 잠재적 진화가 가능하다.

<표 3> 재생 공간의 유기체적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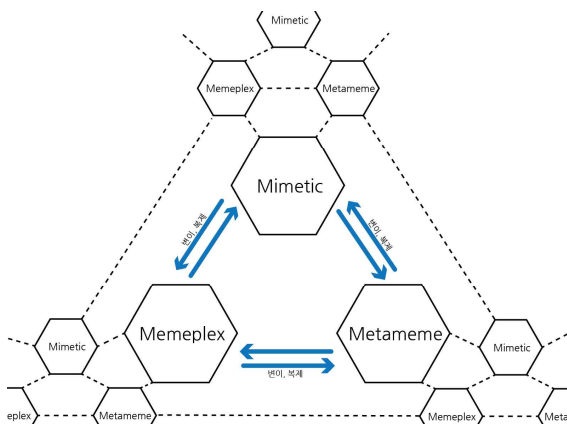
재생 공간의 유기체적 작용	
복합적 결합	다양한 요소의 결합에 의한 복합성
통합적 연결	긴밀한 연결 구조로 통합적 전체
연속적 상호작용	자기조직, 진화를 유도하는 변화 등의 지속적 반응에 의한 생명력
잠재적 진화	지속적 변화에 의해 진화된 새로운 공간의 창조 가능성

재생 공간은 구 요소로써 기존 공간이 갖는 지역성과 맥락성이라는 문화적 요소와 신 요소로써 도태되지 않는 지속성을 부여해주는 보편적 글로벌 양식의 결합체이다. 즉, 일종의 문화적 기표로써 재생 공간은 생명체가 환경의 변화와 세대에 걸쳐 유전적으로 진화하듯, 다양한 문화적 유전자 ‘میم’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공간인 것이다.

3. 밈(Meme)적 특성으로 본 재생 공간

건축 공간은 새롭게 유입되고 형성되는 문화에 발맞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공간이 고정적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적 시스템을 가져야 함을 말한다. 즉, 생명체가 지구 환경의 변화와 세대를 거쳐 유전적 변이와 복제를 통해 진화하듯, 공간 또한 다양한 문화적 유전자 ‘میم’에 의해 새로운 공간을 모방, 창조하면서 진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밈적 공간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며 진화하는 유기적 공간으로 비위계적 구조를 갖는다.



<그림 2> 밈적 공간의 비위계적 구조

앞서 제시된 밈의 순환적 진화 구조와 같이 밈적 공간 또한 각각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드백, 전위 되면서 연속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재생 공간의 유기적 특성은 밈적 특성 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3.1 재생 공간의 밈(Meme)적 의미와 요소

(1) 복합적 결합

두 가지 이상의 신·구 요소가 결합될 때, 서로 융합, 대립, 변형 되면서 기존의 구조적, 형태적 구분과 질서가 무너지고 재구성 되어 새로운 복합적 결합 구조를 갖는 재생 공간으로 나타난다.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 요소와 동시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과거의 양식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와 모티브를 현대의 시선으로 재해석 하고 변형시켜 나타나는 새로운 결과이다.

즉, 전통적 시간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과거와 현대의 연속적 시간성 표현의 일환으로, 역사적 단편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독특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형태적 측면의 다양성뿐 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의 복합성도 나타난다. 기존의 기능만으로 공간의 가치 부여가 어려워질 때, 연속성을 갖는 전체 속에서 신 요소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밀착시킨다. 이 때 각각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대립하기도 하고 융화되기도 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가 생성되는데, 다양한 기능을 연속적이고 유연하게 조절하여 그 경계를 모호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혼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 4> 복합적 결합의 요소

복합적 결합의 요소	·다양한 형태의 결합 ·프로그램의 혼성
------------	--------------------------

(2) 통합적 연결

유기적 재생 공간은 다양한 중첩, 변형된 형태의 재조합으로 인해 불연속적이고 위계 없는 수평적 연결 구조를 갖는다. 신·구 요소가 삽입되고 겹치지면서 공유 공간이 형성되기도 하고 두 공간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연결 공간이 생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성된 사이 공간은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질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하는 모호성을 지니면서 경계를 무너뜨린다. 즉, 다수의 시점에서 관찰된 파편들이 재구성 되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기존의 고정적 영역을 초월한 탈 중심적이고 위계 없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유기적 연결 구조를 갖는 재생 공간은 신·구 요소 각각의 독립적 표현이 아닌 통합적 전체로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재생 공간이 된다.

<표 5> 통합적 연결의 요소

통합적 연결의 요소	·전체로서 의미를 갖는 긴밀한 연결 구조 ·융합적 결합에 의한 모호한 경계
------------	--

(3) 연속적 상호 작용

유기체가 환경과 관계하여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자기 조직화의 기능을 가지듯이, 재생 공간 또한 신 요소와 구 요소가 결합함에 따라 각 영역간의 유기적 상호 작용을 통해 맥락적으로 진화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각 요소가 결합되어 대비, 조화의 관계를 이루며 새롭고 다양한 분위기의 공간을 창출하고 이렇게 결합된 공간은 또 다른 요소로써 배경과 상호 작용한다. 더 나아가 환경, 사회적 요소에 대한 대응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연성과 불확정성을 갖는 전이 공간의 역할을 포함한다.

두 요소 사이의 위치적 또는 형태적 관계가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전이, 각각의 기능을 갖는 공간 사이에서 이를 관통, 융화, 투과하는 기능적 전이, 이용자와 공간 사이의 작용으로 인한 변화로 쾌락, 호기심, 신비 등의 경험을 하게 되는 심리적 전이가 이루어진다.¹³⁾

<표 6> 연속적 상호작용의 요소

연속적 상호작용의 요소	·각 요소와 환경이 서로에게 영향 ·지속적 상태변화
--------------	---------------------------------

(4) 잠재적 진화

공간 요소의 반복, 결합에 의해 생동감을 부여하며, 다양하게 변형된 요소의 조합으로 인한 무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시킴으로써 잠재적 가능성과 창발적 에너지를 갖는다.

잠재성을 갖는 재생 공간은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수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닫힌 체제가 아니라 여러 과정의 상호 작용에 의해 개방적 진화가 이루어지는 열린 체제의 공간이다.

또한, 신·구 요소가 결합함에 따라 이질적 형태의 연속적 혼성, 복합적 위계를 갖는 정형과 비정형의 상호 작용 등에 의해 우연적 결과물을 창출하기도 한다.

<표 7> 잠재적 진화의 요소

잠재적 진화의 요소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는 열린 체제 ·지속적 진화로 인한 생산적 공간 생성
------------	--

3.2. 재생 공간과 밈(Meme)적 특성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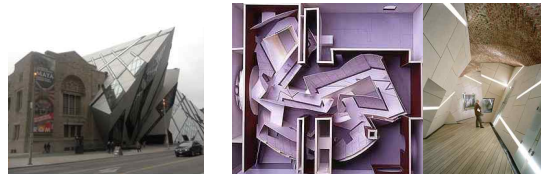
(1) 미메시스(Mimesis)

미메시스 단계는 과거의 모티브를 인용하거나 조형적

13) 박진우, 인터랙티브 공간 형성을 통한 상업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6, pp.15-16

형태를 재구성하는 등, 신·구 요소 각각의 재해석을 통한 건축적 밈의 모방 단계이다. 이 때 각 요소의 변형 정도에 따라 완전한 보존의 개념으로써 구 요소의 복제, 감산 개념의 배제 또는 결합 등 어느 정도의 변형이 허용되는 변이의 방법으로 밈적 요소를 재구성 할 수 있다.

기존의 구 요소를 일부분이 배제, 복제 또는 변이 과정을 거쳐 유지하고, 건축적 상황과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변이된 신 요소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형태적, 기능적 복합성을 갖는다.



<그림 3> 신·구 요소의 복합성-Daniel Libenskint (좌)Royal Ontario Museum, (우) Danish Jewish Museum

다양한 신·구 밈으로 이루어진 재생 공간의 미메시스는 제 3의 신 요소 적용, 또는 구 요소의 변이 등 환경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또 다른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밈은 타 공간의 모방 대상으로써 새로운 진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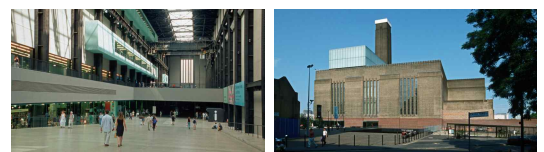
<표 8> 재생 공간에서 미메시스 특성

재생 공간에서 미메시스 특성	·혼적의 재해석 및 재구성을 통한 복합성 변화의 가능성 ·복제에 의한 확산의 잠재성
-----------------	---

(2) 밈플렉스(Memeplex)

문화적 관점에서 각각의 밈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단을 이루 듯, 미메시스 단계에서 선택된 건축적 밈들이 개별적 요소가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갖는 창의적 조합이다.

재생 공간의 밈플렉스는 신·구 요소(글로벌 밈과 로컬 밈)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만나 이루어지는 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로 혼성적 특성을 나타내며 상호간에 대비, 또는 조화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림 4> Tate Modern Gallery1-Herzog&De Muron

헤르조그&데피론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기존 건축물의 형태적 변형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능과 형태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굴뚝을 포함한 기존 형태를 유지하여 장소성과 정체성이 담긴 밈의 변이 및 복제가 이루어

졌으며, 새롭게 설치된 라이트 빔과 램프, 실내 공간의 개축 등을 통하여 현대적 미미가 변이되어 적용되었다. 이로써 다양한 형태적, 기능적 미미들이 결합된 복합체적 특성을 갖게 되고, 각각의 요소가 분리된 것이 아닌, 대비 또는 조화의 관계를 갖는 유기적 전체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신·구 요소의 적절한 변형과 조합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작용된 결과물로 지속가능한 흐름체이며, 사용자의 적극적 수용과 주변 조건과의 연계, 과거 보일러와 터빈들이 들어왔던 거대한 홀과 같은 문화 공간은 변화의 수용에 대한 잠재력을 갖는다.

재생 공간의 밈플렉스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상호작용 하는 공간으로, 흔적의 재구성, 형태적 복잡성, 프로그램의 혼성, 탈경계적 특성 등을 갖는 유기적이고 복합적 공간이며, 각 밈의 독립적 구조가 아닌 전체로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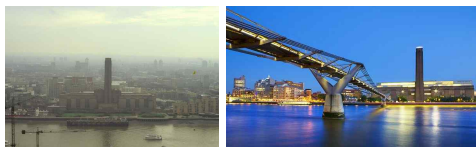
<표 9> 재생 공간에서 밈플렉스 특성

재생 공간에서 밈플렉스 특성	신·구 밈의 변이와 복제, 결합에 의한 복잡성 대비적/조화적 결합체로써 전체성 연속적 상호 작용에 의한 흐름체 진화의 잠재성
-----------------	--

(3) 메타밈(Metameme)

재생 공간이 주변 환경과 더불어 공생하는 안정적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한다. 진화된 재생 공간은 배경이 되는 다양한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적, 문화적 맥락과 공생하는 안정적 재생 공간이 되는 것이다.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원래 런던에 위치한 위험하고 낙후된 지역의 폐쇄된 화력 발전소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나, 발전소 건물의 건축적 장점과 잠재력을 인정하여 리노베이션을 계획하였고, 이를 필두로 시작된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을 런던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 시켰다.¹⁴⁾ 테이트 모던 갤러리라는 메타밈적 재생 공간이 문화적 힘을 갖는 랜드마크로 진화하고, 그 힘이 해당 지역에 확산되어 도시 자체의 재생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림 5> Tate Modern Gallery2
리노베이션 전(좌)/후(우)

14) 조연주,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산업시설의 컨버전 방법에 관한 연구 : 문화공간으로 컨버전한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4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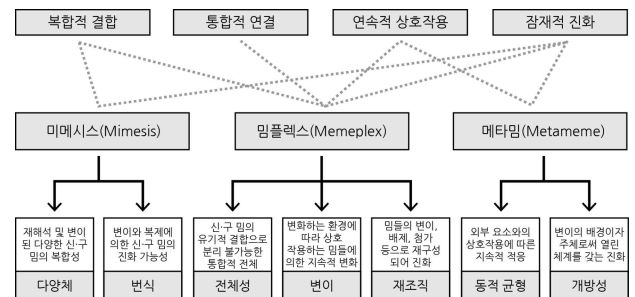
재생 공간에서의 메타밈은 시간의 흐름, 사회적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결과물로서의 과거의 창작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힘을 가지고 확산되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재구성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어 도시의 분위기 및 환경적 이미지 생성에 이바지 한다. 즉, 재생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진화할 수 없고, 때로는 타 공간의 진화적 배경이 되기도 하며 공진화 하는 것이다. 이때, 상호 이득을 주며 진화하는 확산적 공진화의 형태, 또는 서로 경쟁적 구도를 갖는 대립적 공진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표 10> 재생 공간에서 메타밈 특성

재생 공간에서 메타밈 특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속적 상호작용 도시 재생 관점의 확산적, 대립적 공진화
----------------	--

3.3. 소결

재생 공간은 ‘구(old) 요소’와 ‘신(new) 요소’라는 대립적 개념의 건축적 밈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밈적 공간으로 해석 가능하다. 더불어 유전자와 같이 진화하는 재생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기적 작용의 특성이 나타나며, 밈의 진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생 공간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6> 재생 공간의 밈(Meme)적 특성

미메시스(은 신·구 밈이 독립적 객체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기초적 단계로 복잡성과 진화의 가능성을 갖는다.

복제 및 변이된 신·구 밈의 적용, 즉 현대적 요소의 수용과 함께 기존 흔적이 재해석 된다. 이렇게 형성된 밈들은 재생 디자인의 요소로 동시에 나타나는데, 두 가지 이상의 형태, 기능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다양체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각각의 밈은 타 공간으로 하여금 복제 및 변이 가능한 모방의 대상이 되어 진화를 위한 번식력을 갖는다.

밈플렉스 또한 재생 공간의 유기적 특성이 나타나는 결합체로써 복잡성, 통합적 연결, 연속적 상호작용, 진화의 잠재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다양한 신·구 밈이 융·복합적으로 결합된 합성의 결과물로, 각 요소의 독립적 작용에 의한 공간이 아니라 서

로 대비 및 조화의 관계를 이루는 등 통합적으로 연결된 분리 불가능한 전체이다. 더불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각의 밈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체이다. 즉,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작용하는 밈들 사이의 관계나 형태, 기능, 의미 등의 지속적 변이가 이루어진다. 또한, 공간 외부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변화, 내부에서 나타나는 공간 요소의 변화 등이 다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밈플렉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밈들이 지속적으로 변이, 배제, 첨가되어 전체의 특성에 변화가 생긴다. 즉, 언제든 보다 진화된 상태로 재조직 될 수 있다.

메타밈은 재생 공간이 갖는 밈들을 지배하는 안정적 상태로, 다양한 재생 행위로 인해 형성된 전일적 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상호 작용하며, 진화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 조건과 상호 작용하여 지역적, 문화적 맥락의 동적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메타밈은 도시 재생의 범위까지 수용하여, 변이의 배경이자 주체가 되어 타 공간(또는 지역)과 공진화하는 열린 체계를 갖는다.

4. 사례 연구

4.1. 사례 선정 및 분석 방법

독일 에센의 줄페라인 탄광 지대 재생 사업은 슬럼화된 폐광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사례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되는 등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2010년 유럽연합이 매해 시행하는 ‘유럽문화수도’사업에서 에센이 유럽문화수도로 선정 되는데, 이는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산업화 이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에센이 같은 여건의 다른 도시들을 위한 도시재생 모델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¹⁵⁾

이렇듯 에센의 줄페라인 탄광 지대는 퇴색해 버린 공간에 생명력을 주입하여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효과적 재생 사례로 재생 공간 디자인의 본보기로써 그 가치가 인정된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건축적 밈과 새롭게 첨가된 밈의 적용을 통해 공간을 되살리고,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 계획을 시작으로 건축적 리노베이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탄광지역에 새롭게 나타난 밈이 진화, 확산 되어 단지에 거쳐 나타나는 밈적 재생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장까지의 분석을 통해 밈적 재생 공간은 단순히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범위에서 적용 가능한 문화적 유전자로써의 재생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다양한 건축적 밈이 융합되어 공간을 되

살리고, 이렇게 생성된 공간은 새롭게 진화된 건축적 밈으로써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갖는 도시 재생을 가능케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디자인적 가치가 입증된 독일의 줄페라인 재생 사업을 통해 밈적 재생 공간의 특성의 통합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앞서 도출된 키워드와 언어를 바탕으로 줄페라인 재생 지구의 밈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4.2. 사례 개요

독일 루르 공업 지대의 대표적 도시인 에센에 위치한 탄광지역인 줄페라인 광산은 독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탄광으로, 1986년에 폐광되면서 버려진 땅이 되었다. 이후 노만 포스터, 세지마 카즈요, 렘쿨하스 등이 참여한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슬럼화 되었던 탄광지는 되살아났으며 오늘날 디자인의 성지로써 세계적 문화 명소가 되었다. 석탄세척공장과 보일러 하우스가 있는 수직갱도 12지역, 1/2/8 지역과 코크스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이 이루어 졌으며, 기존 시설을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박물관과 극장, 콩그레스 센터, 디자인 스쿨, 공원 및 각종 편의 시설 등 새로운 공간과 기능을 첨가하여 활성화 시켰다.

4.3.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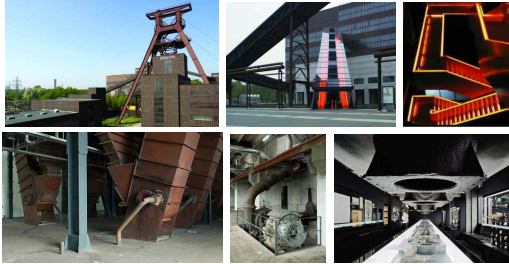
(1) 보일러 하우스

① 레드닷 뮤지엄							
개요							
노만 포스터가 수직갱도 12지역의 안쪽에 자리한 보일러실을 리노베이션한 디자인 박물관이다. 줄페라인 프로젝트의 시발점이자 오늘날 디자인의 성지로 여기지는 공간으로, 문화예술 시설로써 줄페라인의 입지를 굳히게끔 하는 핵심적 문화 공간이다.							
이미지							
밈적 특성	다양체	번식	전체성	변이	재조직	동적 균형	개방성
	●		●	●	●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굴뚝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붉은 벽돌과 철골 구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구 밈이 재구성 되었으며, 곳곳에 현대적 공간 요소와 전시물을 배치하여 다형성과 다기능성을 갖는 공간이다. - 내부 공간은 기존의 녹슨 구조체, 낡은 설비물과 현대적 요소가 경계 없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투명성을 갖는 재료의 사용으로 신·구 밈이 융합적으로 합성된 공간으로써 대비·조화의 관계 갖는 통합적 전체이다. -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디자인 관련 강연, 세미나 등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을 갖는 공간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밈의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과 기능의 유동적 흐름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밈과 새롭게 적용되는 밈들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동시에 나타나는 공간이다. 즉, 지속적인 변이에 의한 공간이며,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재조직되는 공간이다. 						

15) 홍종열, 박지완, 산업유산을 활용한 독일의 유럽문화수도 에센-루르지역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4권 제1호, 2014, pp.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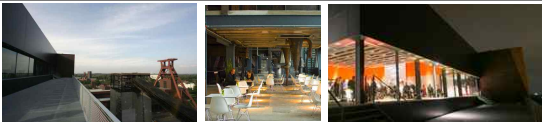
(2) 석탄세척공장

②루르 박물관(Ruhr Museum)							
개요							
렘쿨하스가 리노베이션하여 2010년 개관한 박물관으로 줄페라인 탄광의 대표적 공간이다. 석탄 세척 공장의 6m지점에서부터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루르의 에펠탑이라 불리는 기존의 권양탑과 증축된 출입로를 포함한다.							
이미지							



목적 특성	다양체	번식	전체성	변이	재조직	동적 균형	개방성
	●	●	●	●	●	●	●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양탑의 보존과 기존의 붉은 벽돌, 새롭게 증축된 유리 통로와 주황색으로 도장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 외부 요소의 재활용과 변이를 통해 다양한 형질이 동시에 나타난다. 내부 공간 또한 과거의 기계 장비 및 철골 구조물의 재활용, 새롭게 적용된 강렬한 색채와 현대적 재질, 밝은 조명의 적용에 의해 신·구 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밝은 주황색을 띠는 요소는 타 공간에서도 나타나는 건축적 밈으로 탄광지구 전반에 걸쳐 번식되어 나타난다. - 기존 건물과 대비되는 출입로의 색채 및 재료적 특성은 서로의 존재감을 부각시킴에 따라 두 건축적 밈이 통합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부 공간에서 산업시설의 장소성을 띠는 밈들을 구조, 전시, 조형적 요소로 활용함으로써 현대적 요소와의 자연스러운 합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요소를 간의 경계적 무의미성이 표현된 통합체이다. - 루르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의 밈이 상호작용하며 공존하는 흐름체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이가 이루어진 공간이다. 더불어 미래의 변화에도 대응가능하다. 전시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 밈이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는데, 이때 신 요소의 변화는 기존의 맥락적 밈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는 주제에 따라 신·구 밈들이 재조직된다. - 권양탑을 포함한 루르 박물관은 줄페라인의 랜드마크적 건축물로, 적용된 재생 디자인 요소(산업시설이라는 고유의 지역성이 주는 이미지, 강렬한 색채, 기존 재료의 재활용이 주는 이미지, 신·구의 결합체로 여겨지는 요소가 주는 이미지)는 주변을 이루는 타 공간에도 적용 되는 밈이다. 이는 줄페라인의 중심체이자 배경의 역할을 하는 메타밈이며, 신·구 밈의 변화 속에서 탄광 지구의 재생 흐름을 유지하는 동적 균형의 상태로 나타난다. 						

③에리히 브로스트 파빌리온(Erich Brost Pavilion)							
개요							
석탄 세척 공장의 지붕위에 수직 증축된 다목적 이벤트 홀로, 다양한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동시에 줄페라인 부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이미지							



목적 특성	다양체	번식	전체성	변이	재조직	동적 균형	개방성
	●	●	●	●	●	●	●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 콘크리트, 암적색의 철골구조와 벽돌 등 기존 재료에서 나타나는 재질과 색채가 변이 및 복제되어 신 요소(회색과 주황색)로 적용 되었다. 이는 기존 요소가 번식한 것으로, 구 밈과 새로운 밈이 새롭게 병치된 구축물에 적용되어 다형성을 띤다. - 기존 건물과 같은 직육면체의 형태와 비슷한 분위기를 갖는 퇴장재의 사용은 조화의 관계를 이루고, 내부에 사용된 밝은 주황색은 신·구 요소 간의 적절한 긴장감을 형성시키는 대비적 관계를 갖는다. 즉, 두 요소가 공존함에 따라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통합적 전체이다. - 기존 외장재와 대비적 색채가 주는 이미지는 줄페라인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메타밈으로, 변이에 의한 재생이 이루어 졌으나 탄광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을 유지하는 동적 균형 상태이다. 						

(3) 기타시설

④코케라이							
개요							
코크스 공장 지역의 제련시설인 코케라이를 재활용한 아이스링크와 수영장, 휴식 공간으로, 코크스 공장에 냉각수를 공급하던 수로를 활용하였다.							
이미지							



목적 특성	다양체	번식	전체성	변이	재조직	동적 균형	개방성
				●		●	●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거대한 설비를 속에서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기능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계절의 흐름에 따른 미래적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변이적 공간이다. - 복잡하게 가로지르는 설비의 재활용은 탄광 지역의 마스터플랜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요소로 줄페라인의 메타밈이다. 이 공간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변화를 격지만 지구 전체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적 균형의 상태이다. 또한, 코크스 공장과 주변 시설의 사이 공간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생을 위한 변이의 배경이 되기도 하면서 공진화 하는 개방적 체계를 갖는다. 						

⑤컨베이어 브리지							
개요							
수직경도 12지역, 1/2/8 지역, 코크스 공장 지역을 기능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컨베이어 벨트를 보행자 통로로 전용하여 산책로로 사용함과 더불어 곳곳에 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지							



목적 특성	다양체	번식	전체성	변이	재조직	동적 균형	개방성
		●	●			●	●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의 용이성을 위해 사용되었던 컨베이어 벨트를 산책로 전용하였다. 이는 기능적 변이가 이뤄진 모방의 대상으로 줄페라인 단지 전체에 걸쳐 번식하여 나타난다. -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에 새롭게 조성된 녹지 공간, 그리고 브리지의 기능을 합성 시켜, 사용자에게 체험적 공간이라는 밈플렉스적 요소를 제공한다. - 컨베이어 브리지를 비롯한 녹지 공간은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배경이 된다. 즉, 건물과 건물 사이, 탄광지구와 외부 조건 사이의 공간으로 완충적 역할을 함에 따라 줄페라인의 전일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한다. 이러한 재생 요소는 동적 균형의 상태 유지하여 안정적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타밈이다. 더불어, 기능의 변이를 통한 진화는 단지 내의 건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변이의 주체가 되므로 개방적 진화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줄페라인 탄광 지구에서 나타나는 건축물의 리노베이션과 시설물의 재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재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각 공간에서 나타나는 밈적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사례는 기존 줄페라인 탄광의 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재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산업 시설물과 새롭게 첨가된 현대적 밈이 변이되고 번식하면서 형태적·기능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미메시스의 단계를 기초로 한다.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사례에서 재생 공간의 밈플렉스

적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탄광 시설의 낡고 투박한 외관, 철골조의 기존 설비, 새롭게 첨가된 프로그램, 현대적 공간 요소와 전시품, 강렬한 색채 등 신·구 요소가 상호 작용하며 변이됨에 따라 융·복합적 재생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을 비롯하여 주변 시설물 또한 mimetic regeneration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 나타나는 재생 특성은 도시적 관점의 재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변 시설물의 mimetic regeneration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흐름을 연결하는 매개체으로써 변화에 따른 동적 균형을 가능케 했고, 줄페라인 탄광 지구는 이러한 재생 디자인을 통해 구성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전일적 특성을 갖는 메타mimetic regeneration 단지가 되었다.

<표 11> 사례 분석 종합

재생 공간	mimetic 특성						
	미메시스		mimic렉스			메타mim	
	다양체	번식	전체성	변이	재조직	동적 균형	개방성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⑤		●	●			●	●

5. 결론

본 연구에서 재생 공간의 mimetic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 공간도 생명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변화한다. 유전자에서 시작된 mimetic의 개념은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문화적 기표로써 건축적 mimetic이 재생 공간에 적용되어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 진화가 이루어지는 유기적 공간이 된다. 따라서, mimetic 재생 공간은 유기체적 작용에 의한 복합성, 전체성, 연속성, 잠재성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mimetic의 진화 단계에 따라 생성 원리, 결합 구조, 작용 체제, 담고 있는 콘텐츠에 따른 각 단계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각의 진화 단계와 신·구 mimetic이 연속적으로 피드백 되는 순환 체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재생 공간을 이루는 건축적 mimetic들은 연속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즉, 각각의 진화 단계가 한 번의 재생 행위로 끝나는 고정적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산되는 비선형적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mimetic 재생 공간은 도시의 범위까지 수용하는 지속 가능한 재생 공간이다. 줄페라인 탄광지구는 두 가지 이상의 건축적 mimetic이 만나 건축물이 리노베이션 되고,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시설물과 같이 공간의 배경을 이루는 주변 시설의 재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각각의 결과는 mimetic의 진화 형태에 따른 유기적 특성

이 다양하게 나타나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mimetic 재생 공간은 두 가지 이상의 건축적 mimetic이 만나 건축물의 가치뿐 만 아니라 지역성의 회복이 가능하며, 건축 공간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다.

진정한 재생 공간은 다양한 문화의 수용, 변이, 진화가 이루어져 시간의 흐름에 도태되지 않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간 디자인에서 스스로 진화하는 문화 유전자 ‘mimetic’의 적용은 건축의 맥락적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성의 부재라는 도시 문제의 효과적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병윤, 진경돈, 현대 건축과 생물학의 대화, 시공문화사, 2000
2.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돌베개, 2013
3.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2 은유와 생성, 미메시스, 2010
4. 장윤규, 복합체, 간향미디어랩, 2005
5. Richard Brodie, 마인드 바이러스, 윤미나 역, 흐름출판, 2010
6. Richard Dawkins,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 역, 을유출판사, 2006
7. Susan Blackmore, mimetic(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김명남 역, 바다출판사, 2010
8. 노정은, 건축공간의 재생·활용을 위한 컨버전디자인의 전략과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8
9. 박진우, 인터랙티브 공간 형성을 통한 상업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6
10. 진한나, 현대 공간재생의 개념 확장과 표현 요소로써 디자인의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7
11. 조연주, 도시재생을 위한 유희 산업시설의 컨버전 방법에 관한 연구 : 문화공간으로 컨버전한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2011
12. 고인룡, [발언과 논평]이기적 건축-mimetic의 전쟁, 대한건축학회지 제55권 제2호, 2011
13. 라도삼, 문화환경의 창출과 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문화정책논총 제 17집, 2005
14. 윤일, 조벽호, mimetic(Meme)의 현상이 문화에 수용되는 공간적 구조,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4권 제3호, 통권10호, 2009
15. 홍종열, 박치완, 산업유산을 활용한 독일의 유럽문화수도 에센·루르지역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4권 제1호, 2014, pp.25-26
16. 네이버 두산 백과(<http://terms.naver.com/>)

[논문접수 : 2014. 10. 31]
 [1차 심사 : 2014. 11. 25]
 [게재확정 : 2014. 12. 12]